

정정엽의 '콩'

길을 찾는 그림, 길들여지지 않는 삶

1. 집

'눈을 뜨면 하늘이 보이고
손을 뻗으면 흙이 닿는 곳
최초의 꿈이 꿈틀 꿈틀' (정정엽)

2. 일상

마당에 콩을 심고 당귀를 가꾼다
뒷산에 취와 질경이로 나물을 무친다
산책하며 만난 버찌와 오디는 잼이 된다
당귀를 곁들인 자기만의 속을 넣어 만두를 빚고
음악과 촛불을 밝히고 술을 곁들인 음식도 즐긴다
머리 모습이나 차림도 여성이 갖는 전형은 아니다
규격과 틀에서 벗어난 생활이 편 한 탓이다
앉은뱅이 등받이 의자에서 콩 그림을 그린다
됐다 싶으면 배낭에 스케치북을 꾸러 넣고 집을 떠난다
대출받아 산 집과 그림 팔아 사는 일은 자본과 문명적이지만
덜 소비적인 살림, 느릿한 노작과 여행은 야성적이다

3. 그림

최근 오색 콩을 그리고 있다
앞서 그린 그림들은 적두나 녹두 일색 이었다
정정엽 그림 가운데 콩 연작들은 비장하고 장엄하다
기이한 공포 같은 떨림도 있다
한 뺨, 한 웅 큼, 한 아름씩
불어날 때 마다 강렬한 느낌이 든다
그림이지만 동영상 같다
한 나절, 한 주, 한 달...
시간은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른다
작가의 노작과 일상이 콩으로 덮인다
콩 그림은 생명이요 생활이다
그림과 삶 그 단순한 일상이 단단하게 뭉친 느낌

4. 관객

콩 그림을 본 학일리 농부
'그림으로 농사를 짓는군요'
맞는 말이다
예술? 괴팍한 거 아니다
일상이요 삶이다

실제 곡식은 먹을 수 있다
그림에 떡은 먹을 수 없다
먹는 것으로 장난치면 혼난다
정정엽은 곡식의 혼을 그린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 한다
그 사이 시간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콩 그림은 한 순간 사로잡는 기쁨이 있다

첫 씨앗에서 수많은 씨앗으로 덮는 전 과정이 담겨있다
작가의 일상과 삶이 그림 안으로 느릿하게 들어 찬다
자학과 고통으로 보는 이도 있다

‘팔이네!
모두 다 그린거야?
미친 거 아냐?!’

팔은 콩과 식물
적두, 녹두, 흑두, 백두, 완두, 작두...
인종만큼 다채롭다
곡식이요 생명이다
콩 한 알에 자연과 우주, 인간과 노동이 담겼다
창조란 잃은 것을 찾고 죽은 것을 살리는 거다
일탈보다 일상 속에 잠겨있거나 버림받고 있다
정정엽의 콩은 그것을 건지고 살리는 방식이다
혼자서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 때가 있다
무수한 콩들이 모여 지르는 아우성
구호처럼 음악처럼 영혼을 두드린다
모두 다 그려야 낼 수 있는 소리다
미쳐야 낼 수 있는 소리

이 소리에 미친 한 여성
지금 안사면 평생 후회 할 것 같아 ‘바다’ 작품을 샀다
태어나 그림을 처음 사는 여성이다
‘왜 이 그림을 골랐어?’
‘멀리서 볼 때는 웅장함이 가슴에 팍 꽂혔구요
가까이 보니 언니의 노가다가 느껴져 울컥 했어요’
3개월 할부로 침실 머리맡에 걸어 두었다
‘일을 하고 돌아오면 힘들고 고단할 때가 있지만

이 그림을 보면 위안이 되고 치유되는 느낌'이 든단다

5. 수행

비장하거나 장엄하거나 처연한 아우성
소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정정엽이 그리는 콩은 콩이 아닐 수 있다
콩이던, 팔이던, 물풀이든, 나무든, 동물이든...
무수한 붓질을 되풀이 하여 그린다
자신을 그림 속에 녹아들게 하 듯
입김을 불어 넣어 죽은 생명을 살리 듯
혼과 신을 바쳐
밥 먹고 그리고
똥 싸고 그리고
일 하고 그리고
수천 번 죽었다 깨어나는 잠처럼
그리고 그리고 그리는
생명과 죽음의 일상소리

6. 현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예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마르셀 뒤샹이 남성용 소변기로 기존에 도덕과 미학을 팽개쳤다
그 변기가 반 미학이 되어 박물관에 들어갔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인간 존재는 위태롭고 인간성 또한 훼손당했다

예술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잭슨폴록은 캔버스 위를 걸어 다니며 물감을 흘리고 뿌렸다

기존 회화 법칙과 질서를 가장 회화적인 방식으로 허물어 버린다

독일이 깨지고 미국이 이겼다

유럽이 주도하던 초현실, 인상, 고상한 회화들이 액션페인팅에 뒤흔어졌다

3차 세계대전은 돈과 문명전쟁이다

금융, 과학, 신무기가 상종가고 미국이 주도 한다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 안에 놓여있다

작가는 이런 위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예술이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피하지 말고 뚫고 나가야 한다는 쪽이다

그것이 예술가의 역할이고 사회적 의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정정업은 미술, 노동, 여성, 탁아, 환경 문제를 예술로 풀고 담아 온 작가다

그 바탕은 돈, 개발, 경쟁, 속도 보다 인간, 환경, 노동, 분배가 기초 한다

정정업의 콩 그림은 잭슨폴록의 패스트푸드 같은 드리핑과 대비 된다

촛불을 켜고, 음악을 틀고, 막걸리 따위를 곁들여 느릿느릿 요리 하는 방식이다

마치, 슬로우 푸드처럼 모성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다

6. 콩

초기 작. 팔이나 완두 속에 파묻힌 종지 그림은 시장에서 파는 곡식 풍경이다

위에서 내려 보는 관점이니 다른 배경이 없어 강조할 뜻은 분명히 보인다

노동과 생산성, 자연과 생명성이 곡식 냄새를 풍기며 따뜻하게 담겼다

좋다! 그러나 감각에만 머무는 사실화로써 가슴까지 와 닿지는 않는다

콩들은 골목, 장롱, 가구, 신체와 결합하는 실험으로 이어진다

작가의 일상과 도시생활의 고단한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생명체로써 욕망하는 기운이 초현실적인 풍경으로 나타난다
'흐르는 대지' 같은 작품들은 느낌이 다르다
어떤 배경이나 장치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이나 머리로 읽히지 않고 바로 마음을 두드린다
전방위로 튀고 터지고 증식하는 모습 자체로 소리를 낸다
무대 장치가 없는 추상적 소리가 상징을 자극한다
대지는 씨를 품고 자연과 더불어 다시 수많은 씨를 맺게 한다
수많은 씨앗은 밥이 되고 일이 되고 거름이 되어 다시 대지로 돌아간다
곡식과 대지의 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
팔으로 대변 되는 곡식을 무한한 대지로 이끌고 간다
대지는 바다로 별로 우주로 시간과 역사로 변하기도 한다
이런 상상이 마음에 전율을 일으킨다

콩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가까이 자세히 보았다
먼저 하루 그릴 분량을 씨눈만 여백으로 남겨 둔 채 바탕칠을 한다
그리고 씨눈을 중심으로 가장자리를 지워가며 콩을 그리는 식이다
몇 번의 붓질로 농담을 만들고 금새 팔알이 들어난다
장인의 손길 같이 지혜롭고 효율적인 방식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마치 숙련된 농부가 흙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모습이다

7. 오색 콩

콩들의 량과 함께 빛깔이 내는 힘 또한 지나칠 수 없다
단색조의 팔 그림은 너와 내가 일체화 되고 뻑뻑한 느낌!
붉고, 푸른 콩 그림은 분리되고 대립하는 느낌!
무리지어 촛불을 켤 때 그 밝기와 열기는 놀랍고 멋지다
하지만, 유연함과 자유롭지 못한 단세포적 무리는 기괴한 소름이 돋는다
집단적 팔 시위는 소재가 갖는 상징과 더불어 처연함과 장엄한 정서가 섞여있다
민중이나 혁명적 관점, 권력이나 보수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정서는 다르다

그런데, 최근 오색 콩 그림은 찬란하고 놀랍다
축제같이 가슴이 뛰고 벅차다
마침내 붓물이 터지고 섞여, 골라내고 분리할 수 없는 생명들이 춤춘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통일 같은 세상이 오면 누릴 감격 같은 거 말이다
오색 콩은 상처를 품고 땅을 찾아가는 생명들의 삶이자 마음의 역사 같다
제목이 뭐냐고 물었다
'만찬'
왜?
'색색으로 많이 차려 먹이고 싶어서'
색색이 왜 먹이고 싶죠?
'아무나 말고, 고단한 사람, 자기가 밥 해먹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땅에서 나온 이 아름다운 것들을 먹으면서 새삼 헤아려 보지 않을까?'
만찬이 기다려진다

8. 회상

동시대를 살면서 외면 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
80년대 민중미술은 준 혁명의 시대, 변혁의 시기였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터, 두렁. 여성과 현실을 통해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해 나갔다
작업실 변천사를 겪으며 여권신장을 위한 미술을 일구어 갔다
주어진 조건에서 작업환경을 펼쳐 나갔다
여성으로서도 인간다운 삶을 예술로 찾아 나서는 길이 팔자라 여겼다
변혁에 대한 성과와 생명이 다시 사라 질 수도 있다
환경과 지워지는 생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과 자본, 야성과 문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자유, 대안적 삶이 화두로 떠 올랐다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성찰할 시간이 필요했다

인간이 이룩해 온 회화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

일상이라 함은 사회가 아닌 자기로부터의 출발을 뜻 한다

1997년 '흐르는 대지'를 그릴 때다

곡식을 소재로 몇 작품을 시도 했는데 많은 시간이 들고 공력도 만만치 않았다

100호 작품을 완성하는 데 처음에는 하루 여덟 시간씩 꼬박 석 달이 걸렸다

사진, 영상, 설치 미디어 미술이 주류를 이루는 데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현대성도 없고 비효율적인데다 비능률적인 작업을 해야 하나?

그리고 할 수나 있을까? 반문하고 회의감이 들었다

일단, 나에게 시간을 할애하자!

오랜 시간과 공들여 완성한 다음 의미가 없을 때 내가 갖자!

그런 결심을 하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었다

막상 시작을 하고보니 뜻밖으로 지루하지 않았다

생체 리듬과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시각적으로 축적되는 즐거움이 있었다

콩 그림이 조금씩 변하고 그 변화가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다

본능처럼 그리고 싶은 욕망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차올랐다

그리기라는 행위가 본능이고 욕망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완성하고 든 느낌이다

'오마이 갓, 언제 이걸 다 그렸지?!

9. 벽

작업실 벽에 명함만한 종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정정업이 그 때 그 때 새롭게 쓰는 단어놀이다

편견 : 저 편하자고 하는 짓

길 :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 지 가봐야겠다

고독 : 깨달은 애인

흙 : 흑흑 내 살의 부스러기

주부 : 전문가에 준하는 열두 가지 역할이나 결론은 서비스업

...

길을 걷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삶 속으로 걸어들어 온 명제들이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상적 의문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일상의 우물에서 체험 두레박으로 길어 마시는 물맛이 신선하다

10. 책

올 해의 책 목록

'자유인',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게으름에 대한 찬양', '고뇌의 원근법', '당신의 첫', 고뇌의 원근법 '숨그네'...

한 해 동안 읽은 책 가운데 한권을 뽑아 선물로 삼았다

사람과 소통하는 작가만의 방식이고 기쁨이다

영매라고 있다

미학 김영옥, 영화 권은선, 시 김혜순, 사진 박영숙, 화가 윤석남

이 모임도 책이다

정정엽이 홀로 사는 데 위안이 되는 것도 책이다

여행하며 일기 쓰 듯 그린 스케치북도 책이다

새벽이나 해질녘이면 가까운 산이나 저수지를 산책 한다

산책도 책이요 휴식이다

돌아오면 다시 콩 그림을 그린다

흙과 비, 바람과 햇볕을 만나 생명을 틔울

콩처럼 홀로 온전한 삶을 그리고 또 그린다

그러다 스스로 책이 되겠다

11. 여행

부양가족에 머물러 있어서는 일이 안 되는 작가들이 있다
빠듯한 살림이고 여성이라면 곤혹스러움이야 말해무엇하라
아내, 어머니, 며느리 위치에 있다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작업에 집중하면 집안의 어떤 한 부분을 잊고 있지 않은가
살림을 잘하고 싶을 때는 작업에 대한 갈증으로 목이 마른다
성찰과 통찰, 집중과 몰입, 휴식과 여행이 필요하다
산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미칠 때가 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지도를 펼쳐 보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빈 배낭을 매고 설거지를 했던 일도 웃지 못 할 일이다
여행은 길들여지는 일상의 틀을 깨고 야성을 살리는 힘이 있다
자연과 문명을 둘러보면 스스로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된 다
여행은 공기 같으니 떠나지 않으면 숨 막 힐 일이다
중국, 유럽,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인도, 티벳,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작가에게 여행은 숨통을 틱우는 일과 놀이다
그곳에 숨결을 스무 권 넘는 스케치북에 담았다

열다섯 번 작업장을 옮긴 끝에
도시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연에 가까운 곳에 왔다
그리고 혼자만의 삶을 선택했다
지금까지 주어진 조건에서 작업환경을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창조해 나갈 것이다
서로 기쁘고 축하 받을 일이다
남성위주의 기우뚱한 삶과 미술을 넘어
꿈틀 꿈틀
최초의 꿈을 향해

임민희 (작가)